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	2021. 7. 20.(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부서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 과장 김성원, 서기관 강희정, 사무관 윤연미 • ☎ (044)200-5610, 5614, 5616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담당자	• 과장 고우진, 연구관 한인성, 연구사 이준수 • ☎ (051)720-2210, 2230, 2231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담당자	• 과장 황형규, 연구관 김현철, 연구사 최진 • ☎ (051)720-2410, 2420, 243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전남 함평만에 고수온경보 발령, 득량만 외측까지 고수온주의보 확대

- 특보 발령지역에 사료공급량 조절 및 산소공급 등 신속대응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0일(화) 14시부로 전남 함평만에 내려진 고수온주의보를 경보로 상향 발령하였다. 또한, 전남 득량만 내만에 내려진 고수온 주의보는 외측해역까지 확대 발령\*하였다.

\* 특보 발령 현황 : (2021. 7. 12.) 관 심/전연안

(2021. 7. 15.) 주의보/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2021. 7. 20.) 경 보/함평만, 주의보 확대/ 득량만 외측해역

이는 전남 함평만 해역의 수온이 7월 20일 기준으로 28.6℃를 기록하는 등 고수온 경보 발령기준\*인 28℃ 이상의 높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득량만 외측 해역도 수온 28.2℃로 주의보 발령 기준인 28℃에 도달함에 따른 것이다.

\* (관심) 수온 28℃ 도달 예측 1주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이상 3일 지속

올해 고수온 경보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18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령되었으며, 특보 발령 이외의 해역도 수온이 24.9~26.1℃로 평년에 비해 1~2℃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 관심(7. 17.) → 주의보(7. 24.) → 경보(8. 6.) / 피해액 605억 원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응하여, 7월 19일 장관 주재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수온·적조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장비 점검 및 어업인 현장지도를 철저히 할 것과 입식신고 및 재해 보험 가입 등을 독려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관심단계부터 함평만 연안을 비롯한 고수온 특보 발령해역을 모니터링하고, 국립수산물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배치하여 먹이 조절, 대응장비 가동, 면역증강제 투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어가 지도를 지속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해역에 있는 양식장은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가동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라며, “어업인께서는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철저히 고수온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고수온특보발령 해역도

(2021년 07월 20일)

